

젓꼭지 모양의 유주를 만든 은행나무



지정번호 고성-12-3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고성
수령 838년
수고 35m
흉고둘레 8.5m



경남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1052
35° 02' 31.02" N
128° 17' 40.00" E

척정리 관동마을(또는 행정마을)에 있는 보호수 (고성-12-31) 은행나무는 마을 뒷산의 언덕배기에 서 크게 자라고 있다. 고목의 은행나무가 있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길가에 샘이 있다. 행은정^{杏隱井}이다. 은행나무 뒤편에는 정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행은정구^{杏隱亭舊}라 쓴 표지석이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838년으로 추정되지만 여러 자료에서 400여 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도 나무나이를 800년 이상으로 알고 있다. 나무높이는 35m 정도, 가슴높이둘레는 850cm, 밑동둘레는 810cm 가량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4m 정도이다. 은행나무는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다. 낮은 곳에서 갈라진 가지에 유난히 발달한 유주^{乳柱}이다. 유주는 여성의 젓꼭지 모양처럼 줄기의 일부가 돌아나는 것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은행나무의 유주와 관련하고 있다. 옛날 이 마을에 시집온 이씨 부인이 첫딸을 잃은 후 은행나무를 찾아 100일째 치성 끝에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얻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그렇지만 부인은 아이에게 먹일 젓이 나오지 않아 시어머니의 미움을 사게 되자 은행나무에 목을 매어 죽고 말았다. 은행나무는 이씨 부인이 목을 맨 순간에 그 가지가 아래로 처지면서 마구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은 천둥과 번개를 요란하게 치며 세차게 비를 뿌렸다. 다음날에는 은행나무 가지에서 볼록하게 생겨 젓꼭지 모양을 한 것이 여기저기에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은행나무 유주였다. 지금도 여러 유주를 달고 있는 가지는 사람 키 높이 아래에서 옆으로 뻗어 있다. 시어머니는 이 유주를 잘라 나온 즙액을 받아 손자에게 먹여 키웠다. 예전에는 유주의 모양 때문에 젓이 나오지 않는 산모나 득남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100일 기도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기도 하였다. 이 은행나무는 유주를 베어 달여 먹으면 젓이 잘 나온다는 설 때문에 많이 잘려 나가기도 하였다.

